투데이 칼럼

브랜드시대와 스피치

김양옥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대표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3위안에 뽑힌 한 대기업 인사부장은 "어떤 사람을 인재라고 생각합니까?" 하는 질문에는 '창의', '혁신', '글로벌', '도전정신', '관계형성' 등으로 "우리 회사에 돈을 벌어 줄 사람"으로 대답했다.

이런 사람이 되어 기업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브랜드화 해야 한다. 현대는 자기 브랜드 가치로 평가하는 시대이므로 자신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고 사원이 되어야 한다.

브랜드는 곧 자신이고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스피치 능력으로 끊임없이 창출해야 한다.

자기 이름의 값어치를 브랜드화하여 '나'라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관리해 가는 것이 바로 자기의 성공전략이다.

성공으로 가는 브랜드의 값어치는 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자기의 브랜드 순자산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생각 할 때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종종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며 살아간다.

취업을 할 때, 지도자나 대표자를 선출 할 때, 전업을 할 때나 대출을 받을 때도 신용대출 등급이 있으니 젊은 시절부터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점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나는 무엇으로 잘 알려져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일인가? 2~3년 후 무엇으로 더 유명해 질 것인가? 지난 1년 동안 자기 개발을 위해 시작한 학습이 있는가? 최근 1년 동안 성공을 위해 인간관계를 유지해 온 중요한 사람이 있는가?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이력서상에서 돋보이게 할 아이템이 있는가? 향후, 호감 받는 사람이 되어 거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학습에 참여 할 것인가? 앞으로 브랜드 가치와 몸값을 올려 줄 가시적인 프로그램이 있는가? 앞으로 1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될 사람이 있는가? 를 생각해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

브랜드 업그레이드 전략을 실천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자.

첫째, 비전(Vision)을 설정한다. 비전을 확실하게 설정하여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 비전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 익숙한 것을 잘 해야 한다. 새롭게 자꾸 시작하지 말고 익숙하고 하고 싶은 일에 흥미를 갖고 일해야 한다. 핸디캡이나 능력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강점과 장점에 노력할 때 이루기가 쉽다.

셋째, 이미지 파워를 구축한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우선 첫인상, 외모에서 나온다. 표정, 의상, 스피치, 인간미, 도덕성, 매너 등으로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감성의 표현력을 길러야 한다.

기업에서도 기술보다 감성의 경영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 물품도 물건의 이야기가 있는 감성이 없으면 팔리지 않는다.

우리 인간도 감성과 표현력이 부족하면 기업에서 원하지 않는다. 스피치 학습을 통해 감성지수를 높이고 좋은 표현력으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화합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리더쉽을 발휘하는 자가 되자. 성공하는 리더들은 '내가(I Do It)'에서 '우리가 함께(We Do It)'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비결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그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일에 50%이상을 투자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보다도 자기의 브랜드로 승부하고 자신을 더욱 더 사랑해야 한다.

결국 자신의 고유 브랜드가 성공을 부른다. 브랜드는 무엇보다 스피치학습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적어도 하루 3시간 이상을 자신을 개발 하는데 투자해보자. 자신을 개발하고 브랜드화 하여 명품인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실용학문인 스피치학습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 설

탄소 발전 프로젝트 계속 다듬어야

전북도는 탄소 발전 프로젝트를 계속 다듬어야겠다. 이번에 정부의 추경예산에서 전북 몫으로 69억 원이 반영된 게 고맙기는 해도 아직은 배가 고프다. 지역 발전을 중심 주제로 삼고 예산 증액의 명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전북도가 청구한 내년 예산이 79%밖에 반영이 안됐는데 많이 섭섭한 일이다.

언제고 도민들이 전북도에 말하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낙후돼 있다.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체 비교일 뿐이다.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 뒤처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북도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 지역 발전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말할 수 없다. 지난날 여러 번 언급했던 것을 또 말하거니와 우리 전북 지역의 발전 보폭이 너무 좁다. 다른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분 좋은 모습이 아니다.

전북도는 새만금사업 못지 않게 전주의 탄소 클러스터의 미래를 이끌 프로젝트를 키워야 한다. 이번에 69억원이 반영된 게 의미가 있기는 해도 본래 의도했던 바에는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도지사 이하 전북도 고위 관계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이들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하다. 탄소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한 세부논리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더 주문할 게 있다. 무슨 일이고 성취를 위해서는 진취적인 행보를 보여야 하는데 그것은 발전 프로젝트를 계속 다듬는 것과 병행해 마땅하다.

전북도는 과거에 공표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년까지 1조6천억 원을 투자해 국내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했던 거 말이다. 전북도는 도민에게 약속했던 말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 탄소산업을 백년 먹거리 사업으로 키우겠다고 했던 거 말이다. 전북도는 탄소 발전 프로젝트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한다. 69억원 추경 예산 반영이 자축할 수준은 아니지 싶다.

인구 감소 현실 심각하게 봐야

전북도는 생각해야 할 것이 많다. 그 많은 것들 중의 하나가 인구의 감소이다. 정말이지 인구 감소의 현실이 심각하다. 분명히 그래서 였을 것이다. 전국의 광역도 중에서 지난해 우리 전북의 인구 감소 폭이 제일 컸다. 전북도는 인구의 감소와 관련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있어선 곤란하다.

이번에 또 다시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전북의 현실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185만7815 명이었다. 5월과 비교해 1112 명이 줄은 것이다. 한달 사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7월 하순인 지금, 6월말과 비교해 또 그만큼 인구가 줄었을 거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아직 그에 대한 보고가 없다뿐이지 사실이 그럴 것이다. 그렇다. 이 엄연한 사실을 부인될 일이 아니다. 전북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인구가 늘지 않고 줄고 있는 중에 하향 고착화 현상이 굳어지고 있음은 답답한 일이다. 이 답답한 현상이 목도된 지 오래인데 여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 전북이 늙어가고 있다는 진단은 결코 허튼 것이 아니다.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이만 늘고 있으니 지역의 현실이 딱하다. 청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 전북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다 분발해야 한다. 전북도는 전북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괜찮은 일자리이다. 청년들의 유출을 보고서도 고민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 인구 하향화를 막기 위해서는 청년 고용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지금의 이 암담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년 인구의 유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터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늙어가는 지역의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전북도는 청년 유출 현상을 진실로 고민해야 한다. 일자리 대상을 수상했다고 해서 자랑하듯 들뜬 분위기를 띄울 게 아니다. 전북도는 진짜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독자제언

청소년 건강 해치는 흡연·음주 관심 필요해

사회가 과열 경쟁화 되면서 과도한 입시, 학업부담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이 심하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학생들이 음주와 흡연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15~19세 청소년 중 80% 가량이 최근 6개월 사이에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음주만큼이나 흡연 청소년의 비율도 만만치 않다. 어린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를 묵인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해야 한다.

우선 학생을 키우는 집에서 술·담배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경찰 근무중에 청소년이 음주와 흡연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술, 담배의 출처가 보통 집이라는 대답이 적지 않은데 이에 일반 가정집에서 학생의 비행에 대비해 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두번째로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음주·흡연행위에 대하여 묵인하지 말고 엄벌 하도록 하고 해당 약물 구매금지 연령이 만 19세 미만임을 평상시에 꾸준히 교육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담배구매를 시도한 청소년 71.4%, 술을 사려고 시도한 청소년 72.4%가 구매에 성공했다. 업주들은 마트 직원들을 상대로 청소년으로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교육하여야 하며 직원 스스로도 청소년들이 나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수수방관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욱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에 고민하여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독자제언

'피서지 몰카범죄' 함께 예방하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국내 및 해외 여행 등 더위를 피해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 피서지에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피서지 몰카범죄' 이다.

나사형, 볼펜형, 시계형, 안경형, USB형, 라이터형, 차키형 등 외형상 카메라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카메라가 많고,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설치 해놓는 방법으로 범죄의 수준이 점차 전문화, 고도화 되고 있어 발견이 쉽지 않다.

'몰카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촬영이 아닌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중범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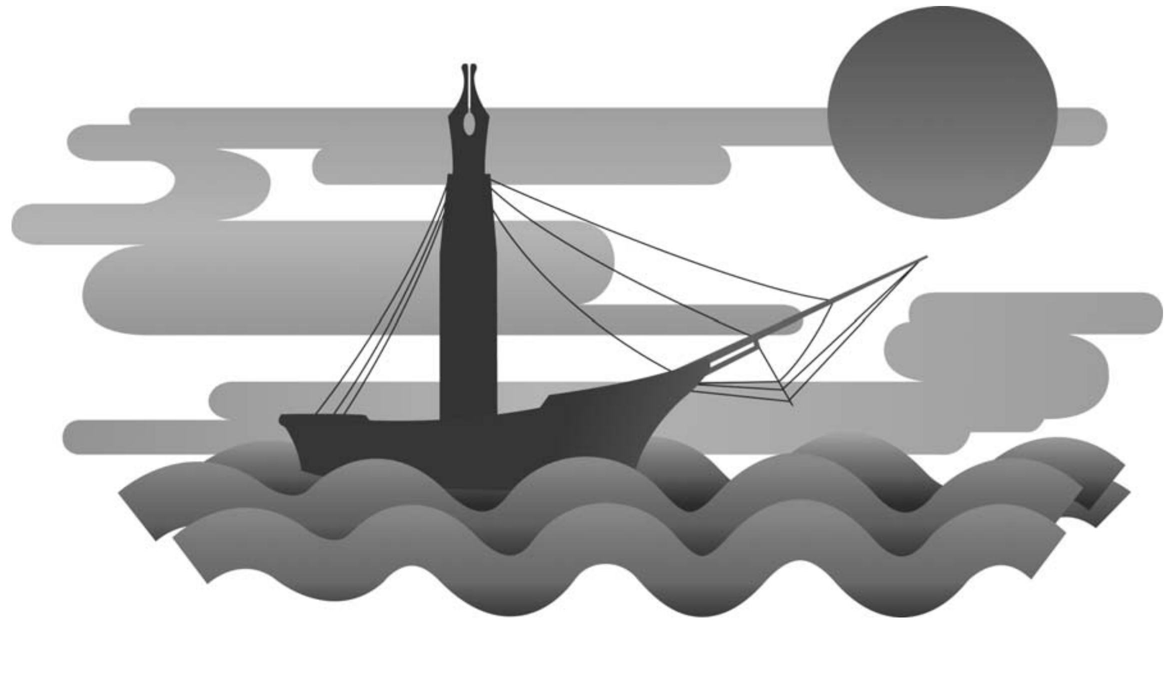
'몰카범죄'의 특성상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 회복도 어려워 예방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이에 경찰에서는, 피서지 등 범죄 우려지역에 '불법 초소형 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보급, 피서지 등 '몰카범죄' 발생 우려지역 중심으로 예방·단속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본인의 신고와 본인이 피해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몰카범죄'를 목격 한다면 즉시 112나 1366으로 신고하여 피해가 줄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예방·단속에 힘을 합쳐야 겠다.

김윤철 전북청 경찰관기동대 3제대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